



기아차 '스포티지R'

SUV '돌풍' 역대 최대 판매 기록 세우나

5월까지 13만4403대 팔려 작년 동기비 24% 급증 2002년 29만7594대 넘어 30만대 이상 판매 전망

캠핑 인구 등이 늘면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돌풍이 거세다.

8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올해 1~5월 국내 완성차 5개사의 SUV 판매 실적은 총 13만4403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 이상 급증하며 이 기간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런 추세가 연말까지 이어진다면 연간 기준으로 SUV가 가장 많이 팔렸던 2002년 29만7594대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SUV는 2002년 당시 기아차 쏘렌토와 현대차 싼타페, 쌍용 렉스턴 등이 큰 인기를 끌면서 판매가 급증했었다.

그러나 세계 경기침체 영향으로 2008년 16만8520대 수준으로 떨어진 뒤 다시 2012년 25만262대, 2013년 29만722대 등으로 최근 몇년간 급성장세를 이어왔다.

올해 들어 가장 인기 있는 SUV 모델은 현대차의 싼타페로, 5월까지 3만6190대가 팔렸다. 이어 기아차 스포티지R(2만403대), 현대차 투싼ix(1만7912대) 등이다.

최근에는 르노삼성사의 소형 SUV인 QM3가 인기몰이 중이다.

QM3는 지난 3월 물량 부족으로 695대만 팔렸지만 4월에는 1445대, 5월에는 2161대

가 판매돼 르노삼성의 전체 실적을 끌어올리는 견인차 역할을 했다. 스페인에서 들어오는 QM3는 계약 후 차를 받기까지 3~4개월을 기다려야 할 정도로 현재 물량이 밀려 있다.

르노삼성 관계자는 "QM3가 유럽에서도 큰 인기를 끌고 있어 스페인 공장이 완전가동되고 있는 데도 물량을 맞추기가 어렵다"면서 "현재 국내에서 가장 인기가 있는 오렌지색 차체에 흰색루프를 얹은 투톤컬러 모델은 5개월 정도 기다려야 차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르노삼성은 지난해 연말 올해 QM3의 판

매 물량을 1만5000대 정도로 예상했지만, 물량 공급을 더 늘릴 계획이다.

세련된 디자인에 높은 연비(18.5km/ℓ), 비교적 낮은 가격대(2250만~2450만원) 등이 QM3가 인기를 끄는 요인으로 분석된다.

하반기에는 기아차가 신형 쏘렌토를 앞세워 SUV돌풍을 이어간다는 구상이다.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최근 캠핑 인구가 크게 늘면서 새 차를 살 때 SUV를 찾는 소비자들이 크게 늘고 있다"며 "SUV는 운전석 시야 확보도가 높아 시야 확보가 쉬워 여성 고객에게도 큰 인기가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신차 역풍'

카니발·쏘렌토 등 출시 앞두고 구형모델 판매 폭

자동차 시장에 신차 출시를 기다리느라 구형 모델을 구매하지 않는 '신차 역풍'이 거세게 불었다.

최근 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내 완성차업체들이 잇따라 신제품을 선보이며 치열한 '신차 전쟁'을 벌이는 가운데 조만간 신차 출시를 앞둔 모델들은 일제히 판매 실적이 고꾸라져 신차의 위력을 입증했다.

신차 역풍을 가장 세게 맞는 업체는 6월 카니발, 8월 쏘렌토 신차 출시를 앞둔 기아자동차다. 5개 국내 완성차업체의 5월 내수 판매량이 4월보다 평균 1.8% 늘어난 가운데 기아차는 유일하게 실적이 8.2% 감소해 뒷걸음질을 쳤다.

카니발은 지난해 5월보다 50.3% 급락한 1381대가 팔렸고, 올해 1~5월 판매량도 7052대(-45.2%)로 지난해 대비 반토막이 났다. 쏘렌토R 역시 지난해 1818대가 판매돼 작년보다 30.8% 빠졌다. 올해 누적 판매량은 14.4% 감소한 9124대에 그쳤다. 구형 쏘울은, 지난해 10월 말 신차(뉴 쏘울)가 나온 뒤 올해 한대도 팔리지 않았다.

현대차도 사정은 비슷해 디젤 모델 출시가 예정된 그랜저의 지난해 판매량(6236대)이 19.8% 떨어졌다. 올해 누적 판매량은 3만7282대로 작년보다 3.9% 감소했다. 그랜저 판매 감소세에는 디젤에 대한 기대감뿐 아니라 9~10월 내놓기로 한 AG(프로젝트명)를 기다리는 대기 수요도 한몫을 한 것으로 보인다. AG는 그랜저와 제네시스 중간 크기로 두 차종과 고객층이 겹친다.

반면 신차들은 무서운 기세로 달려나가고 있다. 현대차의 쏘나타는 4월(1만5392대)에 이어 5월(1만3687대)에도 두달 연속으로 '1만대 고지'를 돌파했다. 르노삼성차의 QM3는 지난해 말 출시됐지만 올해 4월 들어서야 안정적으로 물량을 확보해 5월 판매량(2161대)이 전달보다 49.6% 증가하는 등 '신차 효과'를 길게 이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모든 흥행기록 갈아 치우고...부산국제모터쇼 폐막

22개 브랜드 11개국 179개사 참여 11일간 관람객 120만명 역대 최대

국내 최대 자동차축제의 하나인 2014 부산국제모터쇼가 11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8일 막을 내렸다.

지난달 30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자동차의 바다, 세계를 품다(Ocean or vehicles, feeding the world)'라는 주제로 열린 올해 행사는 관람객 수와 참가브랜드 출품차량 등 각종 수치를 갈아치우고 사상 최대규모로 열렸다.

역대 최대인 국내외 22개 완성차 브랜드를 포함 11개국 179개사가 참여했고, 120여만명의 구름 관람객이 몰렸다.

국내모터쇼에서 세계최초로 공개된 현대자동차의 승용세단 'AG'는 단연 모터쇼의 가장 큰 화제거리였다. 하반기 출시될 경우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상당한 파장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 모터쇼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아울러 현대차가 '그랜저 디젤' 등 승용디젤시장에 뒤늦게 뛰어들었지만 기술력에서도 독일차에 비해 뒤질게 없고 막강한 국내영업력과 브랜드 파워를 앞세워 나갈 것이라는 예상도 나왔다. 현대차가 성공을 거두면 기아차 등 다른 국내 완성차업체들의 디젤승용차 출시가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기아차도 아시아 프리미어로 출품한 '올 뉴 카니발'이 호평을 받으면서 시장점유율 증대에 나설 것으로 기대 받았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8일 '2014 부산국제모터쇼'의 기아 전시장에 몰린 관람객들이 기아차의 컨셉트카 '니로'를 보고 있다.

<모터쇼조직위 제공>



자동차 오래 타기

3 장마철 차량 관리

장마가 곧 시작된다. 기상청이 올해 폭우가 많을 것이라고 예보한 만큼, 장마에 대비한 차량 관리는 더욱 필수적이다. 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한 점검사항을 알아본다.

물방울 맺힘 방지제 안전운행 도움

타이어 홈 깊이 최소 1.6mm 돼야

◇와이프 점검 및 물방울 맺힘 방지제 준비
와이프 날의 마모상태를 미리 점검하고, 충분한 양의 워셔액을 갖춰야 주행중 시야 확보에 용이하다. 사이드미러나 뒷유리 등에 물방울 맺힘 방지제 등을 발라 놓으면 물방울이 맺히지 않아 안전운행에 도움이 된다.

◇에어컨 작동상태를 확인
차량 내부의 김 서림 제거를 위해 에어컨의 냉방, 제습기능을 활용하려면 에어컨 성능이 충분해야 한다. 에어컨이 약할 경우에는 냉매 충전 등 사전 대비를 하자.

◇타이어의 마모상태를 점검한다
과도하게 마모된 타이어는 빗길에서 치명적인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 물이 고인 도로에서 차가 미끄러지는 수막현상을 방지하려면 타이어의 트레드 홈 깊이는 최소 1.6mm 이상이 돼야 한다. <기아자동차 광주서비스센터 박원섭 과장>

(주)대원여행사
062)526-7000
www.daewontour.com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대원빌딩1층 [신세계백화점] 사거리
※각 역에서도 접수 받고 있습니다.

광주역
062)525-4835
광주송정역
062)941-3278

기차여행

후원 **KORAIL** 광주본부
한국관광공사 광명컨설팅센터

6월 13일(금)출발 무박2일 기차여행
부산해운대/이기대/자갈치시장

시간	일정
22:00	광주역 출발 / 광주 송정역 경유
04:30	웅궁사 일출/해운대/동백섬/APEC 누리마루/이기대 공원
13:30	자갈치시장 관광
17:20	부산역 출발
22:20	광주역 도착 / 광주 송정역 경유

성인(경로) 69,000원~
소아 65,000원~

6월 20일(금)출발 무박2일 기차여행
부석사/선비촌/안동하회마을

시간	일정
23:50	광주역 출발
05:30	풍기역 도착
06:30	부석사/소수서원/선비촌/안동 하회마을 관광
21:30	풍기역 출발 / 광주역 도착

성인 77,000원~
경로 75,000원~
소아 74,000원~

7월 18일(금)출발 1박3일 기차여행
정동진/울릉도/독도

시간	일정
1일째	광주역 출발
20:50	정동진역 자유관광
04:40	(일출, 모래시계공원)
11:30	독도 관광
17:30	울릉도 육로 관광 A코스
08:00	울릉도 육로 관광 B코스/해안 산책로 관광
02:00	강릉역 출발/광주역 도착

성인 320,000원~소아 290,000원~

7월 18일(금)출발 1박3일 기차여행
백담사/월정사/양떼목장 지역

시간	일정	
1일째	광주역 출발	
20:50	정동진역 자유관광	
04:40	(일출, 모래시계공원)	
09:00	백담사/통일전망대/화진포의 성 관광	
3일째	월정사/상원사/양떼목장/주문진어시장 관광	
10:30	19:00	강릉역 출발/광주역 도착

성인 220,000원~소아 200,000원~